

# ‘추억으로’...세대 아울러 뉴트로 감성 더하고, 감동 나누다

내달 2일 개막 ‘제21회 광주 추억의 총장축제’ 미리보기

돌아보고, 마주보고, 멀리보며 삶과 추억이 함께 빛나는 축제 매일 매일 새로운 주제로 펼쳐지는 ‘오감만족’ 프로그램 풍성 모두가 하나되는 대동세상...빛고를 넘어선 글로벌 축제 우뚝

추억은 도대체 무엇일까. 굳이 시제로 따지면 과거형이다. 그렇지만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추억을 미래지향적으로 풀어내는 축제가 있다. 올해로 스물 한 번째를 맞는 ‘광주 추억의 총장축제’가 그것이다.

오는 10월2-6일 광주 동구 금남로와 총장로에서 펼쳐질 ‘제21회 광주 추억의 총장축제’는 추억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을 장착한 채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내실 있게 준비되고 있다.



감성을 반영해 추억은 총장축제에서 더욱 구체화 될 것으로 보이며 이게 어떻게 변화 될 것인지 벌써부터 궁금증이 일고 있다.

추억이 과거의 것이라는 기존의 개념을 깨고 나온 것은 지난 해부터다. 처음 추억을 테마로 시작했던 총장축제에서 추억은 과거에 머물러 있었다. 그러던 추억의 컨셉이 지난 해 ‘스무 살 축제’에서 새로운 변화와 변혁의 기회를 맞이하게 됐다. 추억이 과거에서 걸어 나와 미래를 향해 성큼성큼 걸어간 것이다.

추억의 컨셉이 새롭게 정립돼 주목을 받은 것을 비롯해 총장축제의 지난 23년 성과는 ▲축제 테마의 변혁 ▲공간개념의 변화 ▲특화 콘텐츠 시도 ▲축제 참가자 증대 등으로 집약된다. 그리고 올 연초 대한민국 명예 문화관광축제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게 됐다.

올해로 총장축제의 메가폰을 두 번째 잡은 김태욱 감독은 “지난해는 말 그대로 시도였을 뿐 본격적인 변화는 올해부터”라고 전제한 뒤 “여전히 추억은 이 시대 맞지 않은 옷을 입은 것 같은 느낌을 지울 길이 없다”며 어디에도 없는 유일한 옷을 만든다는 마음으로 오늘을 사는 우리

뉴트로 감성으로 세계적 인기를 누리고 있는 뉴진스의 활약에서도 알 수 있듯 추억은 우리만이 아니라 인간이라면 누구나 그리워하는 감성이다. 이 추억이 총장축제에서 이 시대 매력적인 문화현상으로 풀어헤쳐지며 우리에게 진득한 감동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총장축제는 최근 부각되고 있는 ‘뉴트로’ 감성을 적극 수용해 축제의 버전을 업그레이드하면서 추억에 대한 감성을 과거에서 미래로 이끌어 낼 예정이다. 뉴트로 감성은 과거의 향수였다. 현재에 대한 만족감을 더해 단순히 좋은 시절을 기억해 내는 데 그치지 않고 새로운 것을 창출해 낼 문화 현상이다. 따라서 세계를 휩쓸고 있는 이 뉴트로



지난해 열린 총장축제 ‘추억의 밀가루 놀이’, ‘열정 댄스 나이트’, ‘추억정원’ 모습(사진 위로부터 시계방향) <동구청 제공>

의 삶과 추억이 빛나는 축제, 즉 추억의 시제를 현재와 미래형으로 확장시키겠다고 약속한다. 지난해 처음 선보여졌던 추억의 시간 조율성은 올해 더욱 본격화되고 그 밀도가 높아진다. 총장축제가 변곡점을 지나 새로운 추억의 관점으로 내달리게 된 것이다. 따라서 추억에의 접근이 어느 때보다 더 다각적이면서도 심도있게 진행될 예정이다.

총장축제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추억’을 소재로 한 도심 길거리 축제다. 이전 추억이 결코 과거형이 아니라 길 분명했다. 기억 속에서 추억을 끄집어내 현재를 디딤돌 삼아 미래로 도약하는 꿈이 총장축제에서 본격적으로 실현될 예정이다. 밝고 희망찬 내일을 추구하는, 다채로운 추억 관련 프로그램이 착착 준비되고 있다.

통시적 개념의 추억이 새로운 의미와 가치를 띠고 길거리 도심 축제의 판에 펼쳐지게 된다. 다음은 그러한 맥락에서 추억을 테마로 하는 대표적 프로그램이다.

매일매일, 새로운 추억을 만드는 축제로 10월2일 개막의 날, 10월3일 감성의 날, 10월4일 열정의 날, 10월5일 행진의 날, 10월6일 폐막의 날로 구성되고, 세계인이 함께하는 글로벌 축제로서 전일 빌딩 245와 ACC(아시아문화전당) 등 동구 일원에서 펼쳐지는 프로그램으로 10월1, 2일 아시아 뮤직 서밋과 10월3일부터 6일까지 광주버스터미널 드림이 펼쳐진다.

또한, 보고 듣고 맛보고 놀면서 추억하는 소중한 기회를 만드는 축제로서 로맨스 파이어, 복싱장 배틀, 오감으로 추억하는 추억의 테마거리, 바둑대회&알까기 대회, 인생 최고의 대로 등의 프로그램과 함께 모여 대동으로 하나되는 축제 대동놀이 한마당, 추억동창회, 추억의 밀가루 놀이, 파이어아트 퍼레이드 등의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어김없이 이번 축제도 추억이다. 과거에 또아리를 틀되 오늘을 보듬으며 내일로 향해 나가는 추억은 이미 지난 13일 총장축제 D-50 기념 대국민발표회에서 미래지향적으로 전개될 것임을 선포했다.

우리들의 빛나는 추억으로 남게 될 제21회 광주 추억의 총장축제가 다채롭고도 풍요로운 추억의 프로그램을 내용으로 10월 초 총장로와 금남로에서 친연하게 펼쳐진다.

임팩트 동구청장은 “총장축제가 시민들의 각기 다른 추억을 하나로 엮는 매개체가 될 것”이라며 “과거와 현재, 미래를 모두 나누는 화합의 장으로서 역할을 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제21회 광주 추억의 총장축제에 대한 자세한 프로그램을 알고 싶다면 총장축제 홈페이지(recollecion.kr)를 참조하면 된다.

## MZ 세대들의 톡톡튀는 상상력 “골든벨 울려요”

총장축제 청년기획단 ‘찐이’ 2기 3개 팀, 6개 체험 프로그램 준비

제21회 광주 추억의 총장축제 기간 활약할 청년기획단 ‘찐이’ 2기 프로그램이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찐이 2기는 ‘찐이 학교 2학년 1반’, ‘찐이 문구\_소원나무’, ‘찐이를 이겨라’ 등 모두 3개 팀 18명으로 구성돼 있다. 청년기획단 찐이 2기 시민기획 프로그램은 참여 청년들이 구상하고 기획해 시민들과 만날 예정이다.

이 중 ‘골든벨을 울려라’ 프로그램을 맡은 ‘찐이 학교 2학년 1반’은 양미영 팀장을 비롯해 김동인, 김예진, 박규형, 조혜령 씨 모두 다섯 명이다.

‘광주에 대한 퀴즈를 내는 게 어때요?’라는 제안에서 시작된 ‘골든 벨을 울려라’ 프로그램은 광주와 총장축제와 관련된 퀴즈를 풀어보는 체험행사다. 퀴즈로 풀어보는 광주, 광주에 대한 속살을 알게 되고 그만큼 광주에 대한 애정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이들은 주1회 심도깊은 논의를 거쳐 광주, 총장축제 등 추억과 관련된 퀴즈체험 프로그램을 구상하고 있다.

출제 문항수는 300-400개. 그중 우수한 것을 뽑아 시민 또는 외지 관광객 대상의 골든벨 문제로

채택한다. ‘무등산의 옛이름은 무엇인가요?’를 비롯해 광주와 총장축제 관련 문제를 고심하며 출제하는 이 팀은 단순히 출제에만 포커스를 맞추는 게 아니다.

팀원 김동인씨는 “제시된 문제에서 광주에 대해 알아가는 정보와 자료를 제시함으로써 광주에 대해 공부하게 하는 퀴즈로 유도하고 있다”며 “더불어 재미도 곁들이는 출제를 지향한다”고 설명했다.

그래서 과정이 치열하다. 현재 출제된 문항수는 대략 70-80개. 출제문항수를 빠른 시간 내에 늘리면서 각자 출제한 문제를 다 같이 검토해



광주청년센터에서 모여 머리를 맞대고 문제를 출제하고 있는 ‘찐이 학교 2학년 1반’의 팀원들.

야한다. 검토과정에서 문제 제시와 풀이의 방식에 재미와 흥미를 곁들인다. 그 과정이 매우 흥미진진하다.

양미영 팀장은 “MZ들에게 익숙하지 않은 광주에 대한 공부를 단기간에 끝마칠 수 없기 때문

에 수시로 어른들의 조언을 들을 생각”이라며 “지속적으로 광주공부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찐이 학교 2학년 1반’의 또 다른 프로그램은 ‘2024 사투리 학력고사’다. 광주 전남의 사투리문제를 출제해 맞게 하는 프로그램으로 축제 참여자들에게 흥미와 재미를 만끽하게 해줄 프로그램이다. 청년기획단의 나머지 프로그램으로는 ‘찐이 문구\_소원나무’팀의 ‘옛날 과거 빙고’와 ‘추억의 소원나무’ 그리고 ‘찐이를 이겨라’ 팀의 ‘총장 체력짱’, ‘레트로 게임’ 등 총 6개 체험 프로그램을 준비 중이다.

청년 기획자들이 아이디어를 꺼내 기획하고 만들어낸 프로그램이 총장축제에서 참가자들에게 재미와 흥미를 북돋울 것으로 보인다. 광주와 추억에 대한 두께가 MZ세대들이 만들어낸 추억 만들기로 두터워질 전망이다. /박희중 기자

후끈한 열기! 시원한 샷~!  
이 보다 더 좋은 운동이 있을까요?

**파크골프**  
**무료레슨**

온 가족이 함께 즐기는 스포츠

전일파크골프 | 광주광역시 서구 천변차로 26(전일상사 2층) | 문의 062)368-5779 / 010-4645-5778